

## 영 원

1718. 요즘 들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때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충만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지요.

어디서 들었는지 읽었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게 매우 깊은 감명을 주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때는 인간으로 곧 가난한 피조물로서 드리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하느님 식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반의 반 뿐어치도 안 되지만 그분이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한한 세계에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부와 재산과 재화의 개념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영원의 신비 저편에서는 하느님처럼 내어 줍니다.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영원한 보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종착지에 이르면, 거기서는 우리의 말이나 행위가 아닌 존재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충만하고 온전한 생명으로부터 참으로 소중한 것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적인 방법으로 전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전달인지요.

저는 베드로 성인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너무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이르면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더욱 모든 이의 것이 될 것입니다.

1719. 나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은 이미 하늘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애타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죽음... 죽음...! 이는 제 안에서 울부짖는 신비스런 외침입니다.

그분을 뵙기 위해 죽는 것.

길가는 것을 그만두기 위해 죽는 것.

더 이상 이 불안한 땅을 밟지 않고 영원하고 견고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 죽는 것.

지상에서 계속 선을 행하기 위해 죽는 것.

불순한 동기들이 섞이거나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하느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죽는 것.

영혼을 숨막히게 하는 유배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는 것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죽는 것.

1720. 영원한 나라가 우리 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축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1721. 우리는 영원한 항구에 마지막 닻을 내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거기서는 변질되거나 부패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 영원... 이는 우리 영혼의 살아있는 본질 안에 간직된 생생한 외침입니다.

영원... 영원... 오직 이 생각만이 영혼을 만족시키고 충만하게 합니다.

1722. 시간...! 이는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 주어진 절호의 기회입니다. 만일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영원토록 잃어 버린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의 신비로운 눈을 마주보고 사는 것... 과연 어떨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유배지에서 그분의 눈길을 의식하며 사는 만큼, 천국에서 그분의 영원한 광채를 더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1723. 1966년...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풍요로움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산적인 시각을 버리고

하느님의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곳에 이르는 것입니다. 헤아릴 길 없는 깊은 신비입니다.

1724. 오늘... 사물들에 매어 있지 않고 고정된 틀에 갇혀 있지 않는 영원한 오늘...

오늘... 빛과 사랑,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오늘...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당신과 영혼 사이의 무한한 거리를 뛰어 넘으시고 그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배지에서 천국의 빛으로 살아가는 충만한 하루

오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시편 2,7)라고 하시는 성부의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의 여정에 영원토록 고정시키고 싶은 오늘.

성부께서 그 아들을 낳으실 때, 영혼은 벅찬 가슴으로 ‘아버지’ 하고 외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영원한 말씀의 메아리가 되어 반복할 수 있게 되기를... “이분은 나의 아버지, 오늘 그분을 알아보았노라”!

1725. 야훼께서 지나가실 때, 지상의 것들은 흔들립니다. 하느님은 우리 삶을 꿰뚫고 지나 가시며 온전히 그를 차지하시길 원합니다.

멀지 않아 우리는 모두 그분의 영원한 신비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소한 사건들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께 충실한 것입니다.

1726.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입니다. 세상 저편, 천상 아버지 집에서 나에게 손짓하는 형제가 나에게 더욱 가까운 형제입니다.

이미 영원 안에 자리잡은 우리 형제들이 죽음보다 강한 참된 형제애를 발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길 바랍니다.

1727. 그 무엇에도 자신을 아껴서는 안됩니다. 그대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마찬가지로 저 너머에 대한 소식을 세상에 주어야 합니다. 바로 저 너머에 영원의 신비가 있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계시고 사랑의 길을 밝히는 참 행복이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1728.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서서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지막 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바로 저 너머에는 모든 것이 영원의 빛이요, 무한한 신비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한 가닥의 날숨과도 같은 이 인생을 농도 짙게 사는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1729. 새해. 영원한 고향을 향한 한 걸음...

세월은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하느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기 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열정과 힘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1730. 죽음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자 저 세상에서의 첫 순간입니다. 아! 죽음은 신비스런 시작, 사랑의 시작입니다. 위대한 시작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찬란한 무대를 베일 없이 직접 바라보는 것입니다.

1731. 이제 인생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느님의 현존이,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그리고 시간 안에 강생한 그분의 영원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1732. 사랑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향해 서둘러 전진해야 합니다.

행진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행진의 리듬이

시시 각각으로 우리를 재촉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인, 종말론적 교회의 심오한 신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더 멀리, 사물들을 너머 하느님의 깊은 시선과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더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1733. 머지 않아 다가올 우리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당신 안에 영원토록 우리를 잠그시기 위해...

거기서는 여기 이 지상의 것들은 모두가 하찮게 여겨질 것입니다. 가련한 사물들과 사람들! 오직 하느님... 오직 하느님... 오직 하느님.

1734. 영원은 하느님 안에 우리를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더 이상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눈을 지녀야 합니다.

1735. 우리는 시간 안에 영원을 옮겨 심었습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일치와 기쁨, 진리가 정말 현실인지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원하셨고, 또 항상 새로운 힘으로 보존해 주십니다.

1736. 영원한 나라의 신비스런 지평선으로 잠겨 드는 것은 본질적인 아름다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마는 아름다움은 모두 다 너무나 초라하고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자동차의 불빛이 거대한 조명등으로 밝혀진 휘황찬란한 도로에 들어설 때 희미하게 느껴지고, 전깃불이 찬란히 비추는 태양 빛 앞에 초라하게 느껴지며, 하늘 아래 땅이 초라하고 삭막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1737. 영원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이름답고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 가고, 사소한 것들은 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오직 진실만이 남게 됩니다.

하느님... 하느님... 오직 절대적 진리만이 남는 그 영역으로 저를 데려가 주소서.

1738. 예전에는 영원한 광야에 도착하는 순간이 강렬한 느낌으로 다가 왔었습니다. 아마 조금은 두렵기도 했고요. 지금은 그 순간을 말할 수 없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숙한 순간인지, 저 뒤에 하느님이 계시고 그분의 무한하심은 헤아릴 수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롭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날은 언제 올까요? 정녕 그날은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보고 만지고 느낍니다. 그러나 행복할 정도로 평온합니다. 저의 이 평화로움 안에 당신을 끌어들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신비인 그 광야를 향해 우리 함께 달려 갑시다.

